

구제냐 특권이냐... 의사국시, 국정감사서 돌파구 찾을까

의사단체, 권익위 찾아 중재요청 정부, 재응시 불가 입장 재차 강조 국회, 국시 거부사태 국감서 논의



지난달 25일 최대집 대한의사회장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의사국시 응시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내 각계 단체가 의사국시 구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예정인 국정감사가 예정된만큼 정치권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오전,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의협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5층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을 찾아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요구했다. 의사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찾는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찾아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 온 의사들은 대한의사회(의협)와 당정간 합의로 정부가 고시 일정을 연기했지만 약 86%가 응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의협에 이어 진료거부의 최전선에 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까지 업무에 복귀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후 단체행동과 국시 거부 연장의 명분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국시 응시 거부 입장을 선화해 "응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응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협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12개 의료 관련 단체의 협의체인 한국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의사생

의 국시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회도 의협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의사생의 재응시 기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시 응시 불가시 내년 의료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수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적 대안없이 의

대생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재응시 기회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사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57만명을 넘겼다.

정부도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간 부여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적 양해가 없다면 의사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가 이번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가 의사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사생 단체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7일과 22일 예정된 국감 중 의대협 임원을 불러 의대 본과 4학년생의 대규모 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중앙대

코로나 극복 사진전 개최

중앙대(총장 박상규)가 코로나19 극복 응원 사진전 '보이는 소리들(The Visible Voices)'을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캠퍼스 영신관(101관) 앞 중앙광장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개막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7일 오후 3시 영신관(101관) 앞에서 간소하게 열린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학생회 및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떤 사진이 주변의 이웃이나 세상의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재학생들이 각자의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사진 180여 점을 전시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활동 공모

서울시교육청은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진행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 사례를 공모 받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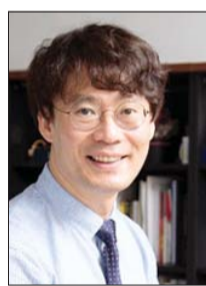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체험이나 지역 마을 활동을 자치구와 지역 단체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형태로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활동 사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및 주민 활동 사례, 교사·장학사·공무원이 주민과 청소년의 비대면 교육활동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면 사연을 접수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카이스트, 불타지 않는 ESS용 수계전지 개발

아연 전극 열화 메커니즘 규명 레독스 흐름 전지 중 최장 수명



해 신재생에너지 및 심야 전력을 대용량으로 저장, 필요할 경우 저장된 에너지를 설비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팀이 아연 전극의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보고된 모든 레독스 흐름 전지 가운데 가장 오래가는 수명을 갖는 '수계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주혁 박사과정(사진)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에 9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피크 수요를 충당하기 위

한 현재 대부분의 ESS는 값이 저렴한 '리튬이온전지' 기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발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 때문에 대용량의 전력을 저장하는 ESS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2017~2019년까지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사고 33건 가운데 가동이 중단

된 곳은 전체 중 35%에 달한다.

김희탁 교수 연구팀은 낮은 표면에너지 지닌 탄소 전극 계면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Surface diffusion)'을 통한 '자가 응집(Self-agglomeration)'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양자 역학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전송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아연 덴드라이트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특정 탄소결함구조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이 억제되기 때문에 덴드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탄소원자 1개가 제거된 단일 빈 구멍 결함(single vacancy defect)은 아연 핵과 전자를 교환하며, 강하게 결합함

으로써 표면 확산이 억제되고 균일한 핵생성 또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김 교수 연구팀은 고밀도의 결합 구조를 지닌 탄소 전극을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해,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류밀도(100 mA/cm²)에서 5000 사이클 이상의 수명 특성을 구현했다.

김 교수는 "차세대 수계 전지의 수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한 게 이번 연구의 성과"라면서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저렴한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80% 이상에서 5000 사이클 이상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ESS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서울대-구글, 공동 교육·연구 속력

협력 파트너 교수 4명 지정



지난해 9월 구글과 서울대는 교육 및 연구지원 협약을 맺었다. /서울대

서울대와 구글이 올해부터 공동 교육·연구 협력 파트너 교수 4명을 지정해 지원을 시작하는 등 협력을 본격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분야 공동 교육·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강유 교수의 '데이터 마이닝 고급과정'과 김선 교수의 '생물정보학을 위한 기계학습'이 구글의 지원을 통해 4개월간 운영된다.

연구 분야에서는 AI 시스템 전문가인 전병근 교수와 유승주 교수가 구글

의 내부 개발 시스템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의 플랫폼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AI를 전공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해외 학회 경비를 3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DNA '언택트 탐지' 바이오센서 개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온라인 게재



가 유기반도체 하이브리드 단결정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광도와 효율에 차이를 유발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인하대는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김석호 박사과정 졸업생(사진)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팀이 원거리에서 작동 가능한 다중검출 리모트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바이오-반도체 융합물질의 광도와 현상을 이용해 다중검출 리모트 바이오센서 개념을 최초로 입증해 재료과학분야 세계최고의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팀은 DNA의 상보적 결합 여부

OLED소자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반도체 단분자인 Alq3와 단일가닥 DNA를 융합해 광도와 특성을 가지는 1차원 막대 형태의 육각기둥 결정을 성장시켰고,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 타겟 DNA의 결합에 따른 발광세기와 광도와 효율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114주년 기념예배 거행

삼육대는 5일 오전 교내 백주년기념관 장군청홀에서 '개교 114주년 기념예배'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일목 총장과 각부처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모든 교수, 직원들이 연구실과 사무실 등에서 시청했다.

김현희 대학원장의 지도를 시작으로, 김원곤 교목처장의 기념설교, 김일목 총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기념사 하는 김일목 총장 /삼육대